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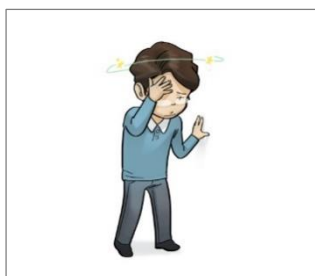
설사 자가관리

03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



대변 양상 변화

-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
- 대변이 나오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경우



탈수

- 소변색이 짙고 양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
- 현기증(어지러움)이 있는 경우



이차 감염

- 설사와 함께 열이 38℃ 이상 나는 경우



설사 악화

- 24시간 이상 설사가 지속되는 경우
- 복통이 심한 경우

항암화학요법 자가관리 설사

ASAN MEDICAL CENTER PATIENT FAMILY EDUCATION GUIDE

서울아산병원 | 암병원 | 암교육정보센터



서울아산병원 암교육정보센터

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(05505)

대표전화 : 1688-7575

홈페이지 : www.cancer.amc.seoul.kr

설사 자가관리

01 증상은 왜 나타나나요?



일부 항암제로 인해 장 점막이 영향을 받으면 수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. 설사 시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허약감, 체중 감소, 항문 주위의 염증, 영양 부족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또 설사의 횟수가 많아지면 항문이 자극을 받아 상처가 생길 수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이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항암제로 인해 설사가 심한 경우 지사제(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)를 복용하거나 정맥을 통한 수액 공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

항암제에 의한 설사는 일시적이며 항암치료가 끝난 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.

일반적으로 설사는 항암제 복용을 중단하거나 지사제 복용으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항암제를 복용하지 않거나 용량을 줄여서는 안됩니다.

설사 자가관리

02 대처 방안



충분한 수분 섭취로 손실된 체액을 보충합니다.



지방이 많은 음식, 야채나 과일 등 섬유소가 많은 음식, 우유나 유제품 등은 섭취를 제한합니다.



설사가 심할 때는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운 미음을 섭취하고 설사가 멈추면 죽, 밥 순서로 식사합니다.



미리 처방받은 지사제가 있다면 복용하고, 설사가 멈추지 않을 경우 의료진에게 문의합니다.



의료진과 상의없이 함부로 지사제를 복용하지 않습니다.



설사 후 항문을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고 톡톡 두드리듯 닦아서 잘 건조시키는 것이 이차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

QR 코드를 스캔하시면, 관련 교육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

항암화학요법
자가관리



설사
애니메이션



설사 증상 시
영양 관리

